

## ■ 민선 5기, 광주일보의 4대 제안

### 심는 순서

- 1 주민과 소통하라
- 2 넓은 관행 깨뜨려라
- 3 의회는 견제하라
- 4 일자리를 만들어라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거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지방자치 실시 15년을 맞아 지역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통과 창조, 견제와 참여, 혁신적인 행정·의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 광주일보는 민선 5기에 요구되는 네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기화시리즈로 연재한다.

## ‘밀실강행’으로 추진동력 못얻는다

### 일방통행 정책결정 말고 반대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된 이후 단시일 내 성과를 남기는 것이 목표인 단체장과 의의 패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지역민과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에서도 ‘개발’과 ‘성장’이 화두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국가지원

이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심 내 녹지 등 미개발지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도심 내 단독주택지역과 도시 외곽은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변모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단기간의 성과를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입지를 다지려는 단체장과 수의의 극대

화를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이해만이 중시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책과 사업이 국내·외 정서와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역민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사전작업이 부실해 시각까지 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단체장이 ‘지휘의 리더십’에만 충실하고, ‘설

득의 리더십’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의 경우 ‘중앙공원 내 특급 호텔 건립사업’, ‘돛구장 건립사업’,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사업’, ‘도시 외곽 택지 개발’ 등이, 전남의 경우 ‘F1 대회’, ‘영산강 사업’, ‘순천 정일박람회 유치’ 등을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두 찬반 양론이 팽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행정력만 남비한 채 무산되기도 했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2010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

FIVB WORLD LEAGUE KOREA 2010 INCHEON GWANGJU

한국 KOREA VS BRAZIL 브라질

7.3(土) ▶ 4(日)  
광주염주실내체육관

세계 배구 강호들이 격돌하는 2010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한국대 브라질전이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에서 벌어집니다. 브라질·불가리아·네덜란드와 함께 A조에 속한 한국은 지난 5~6일 수원에서 네덜란드 전을, 12~13일 인천에서 불가리아 전을 치른데 이어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브라질과의 경기를 광주에서 갖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은 평균신장 2m, 스파이크 타점 3.7m의 가공할 공격력으로 무장했으며 한국 국가대표팀은 신치용 감독의 지휘아래 김요한 문성민 이경수등 스타플레이어들이 역대 최고의 팀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주최: 국제배구연맹
- 주관: 대한배구협회·광주시배구협회·인천시배구협회
- 후원: 광주일보사

光州日報社

##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

한미정상, 3년7개월 늦춰  
답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군에 이양된다. <관련기사 3·5면>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

## 전사여, 눈물을 거둬라 대한민국은 행복했다



27일 새벽(한국시간)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1-2로 패한 후 차두리가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월드컵대표팀 내일 귀국

더 큰 도전을 위한 아름다운 패배였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비와 땀에 젖은 태극전사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을 붉게 물들인 붉은 인파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7·18·19면>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에 1-2로 고개를 숙였다. 8강 신화 재현에는 실패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올라 '유쾌하게' 싸운 한 판이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 0-1의 뼈아픈 패배를 당한 이후 20년만의 설욕전. 또 패배를 기록하며 A매치 상대 전적은 5전

오늘밤의 월드컵			
	네덜란드	vs	슬로바키아
<28일 23:00>			
	브라질	vs	칠레
<29일 03:30>			
스코어 보드			
대한민국	1	vs	2 우루과이
미국	1	vs	2 가나

익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든다.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라남도

## 녹색 희망이 활짝 웃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바꾸면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 ▶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 것
-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 ▶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는 것
- ▶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
- ▶ 물을 아끼고 사용하는 것
- ▶ 전기를 아끼고 사용하는 것
- ▶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